



보도시점

2026. 6. 4.(목) 06:00
6. 4.(목) 석간

배포 2026. 6. 2.(화) 16:00

양파 수매비축 확대 등으로 공급과잉 물량 초과 시장격리 추진

- 정부 수매비축 평년 대비 82% 확대한 20천톤 추진 후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 방출
- 단기 수급대책 이외 '국산 양파 품질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도 병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공급량이 증가한 중만생종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감소(14,148ha, 평년비 7.4%↓)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단수가 큰 폭으로 증가(7,690kg/10a, 평년비 12.2%↑)하여 생산량은 평년 대비 41천톤 증가한 1,088천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단경기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수매비축을 평년 대비 82% 확대한 20천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주산지 농협 등이 최대한 수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무이자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주산지 지방정부 등이 협력하여 일부 공급과잉물량을 신속히 산지 출하정지(223ha, 전체 재배면적의 1.6% 수준) 하고, 양파 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저품위 양파(下품)가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기관 유튜브를 통한 양파 홍보영상 게시, 대한영양사협회 협조를 통한 공공급식 확대도 기요청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 지원(최대 40%)을 당초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까지 연장하여 소비촉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5월 대책에 포함된 수출지원(10천톤), 출하연기(5천톤) 등 대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수급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산지 지방정부, 농협 및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상시 수급 불안에 따른 단기 수급대책 이외 우수품종 생산지원, 재배기술 고도화, 저장기술 개선 등 국산 양과 품질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장성두 (044-201-2236)

